

# 호수길 걸으며 명상에 잠기다

## 7일,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 개최

바라보는 곳마다 단풍이 불타 오르고 가을바람이 싱그러운, 이 좋은 가을이 흘러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법당 밖으로 나와 가을 속을 거닐며 명상에 잠겨보자.

제1회 '명상 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가 11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성지곡 부산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에서 개최된다.

10월 20일 창립 1주년을 맞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와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BBS 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관)이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전국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지역 불교신도들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삼귀의, 반야심경, 설동근 회장(부산시 교육감)의 대회사, 장여 부산불교연합회장 격려사, 하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유기준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의 축사, 참가자 몸 풀기 체조, 코스 안내 등의 순으로 30분 간 마련된다.

이어 2부 걷기대회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을 출발해 성지곡수원지, 놀이동산, 수변공원, 동물원 등지를 돌아오는 코스로,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약 3.4km구간을 1시간여 일주하고 광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끝으로 3부에는 무대공연 및 경품 추첨, 참가자 자기자랑 등 흥겨운 회향축제가 마련된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빵, 음료 등 간식이 제공되며, 추

첨을 통해 증정될 경품으로는 자전거 108대, 코모도호텔 경주 숙박권과 뷔페이용권, 종합건강진단권, 에어부산 국내선 왕복항공권, 부산 시민회관 영화관람권, 건강식품 등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참가신청은 인근 사찰에서 1500명, 당일 현장에서 500명에 한해 선착순 모집한다.

설동근 회장은 "불교의 수행방법 중 하나인 명상을 걷기와 접목해 다 걸기대회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호수와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걸으며 건강도 증진하고 여유로운 명상에 잠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 861-8800 www.baob.kr

박지원 기자 hctbp@hanmail.net

# 부산여자상업고 합창단 대상

##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 개최



대상을 수상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합창단.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에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창덕) 합창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0월 24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파라미터에 소속된 전국 중학교 합창단 중 예선 심사를 거쳐 통과한 총 9개 학교 합창단이 본선무대에 올랐다.

1부 개회식 및 창립13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합창경연대회, 3부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명숙 협회장은 "부산파라미터는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를 6년 여에 걸쳐 훌륭히 해내고 있고, 파라미터 캠프를 비롯한 청소년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전국의 파라미터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13주년을 평가했다.

수상자는 금성 김해 월산중(교장 박승호)과 김해 중앙여자중(교장 민성기), 은상 전주 서신중(교장 한병갑)과 부산 해동중(교장 손태석), 동상 양산 신주중(교장 이복귀)과 광주 정광중(교장 현남성), 장려상 울산 제일고(교장 이순익)와 부산 금정중(교장 현익재) 등이 각각 차지했다.

파라미터 부산지부 총재 정여스님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적극 동참해 준 파라미터 소속 학교장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전국 청소년합창경연대회가 맑고 고운 화음을 불자 및 비불자 청소년들에게 선사하는 법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금정중학교 현익재 교장

# “포교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농담 조금 보태서 부산 불교계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1969년 부산대 재학 시절 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지부(이하 대불련) 활동 이후 지금까지 대불련 동문회로 활약하는 이 사람, 지난 40년간 15권의 부산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책과 총람 등을 편찬했고, 총 20여 개 불교단체에서 실무자로서 부지런히 활동했으며, 직접 창단한 단체인 8개에 이른다. 현재 중립학교 금정중학교 교장으로 청소년불자 양성에 매진하는 이 사람, 바로 현익재(61. 법명 무심) 교장이다.



현익재 교장.

1974년 '부산불교홍보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포교에 도반들의 원력이 모였다. 이어 '법문불교어린이회'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 '운전기사불자회' '부산중등교원불자회' '재단법인 불심홍보원' 등의 단체를 창립했다.

2007년 창립한 교육경영직불자모임 푸루나 부산지부는 발기인대회 이후 3개월 만에 200여 명의 회원이 모였다. 현 교장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말한다. "교사불자모임에 가보면 젊은 현직교사는 안 보이고 죄다 퇴임한 교장, 교감, 장학사 선생님들 뿐이었어요. 금정중학교 교장으로 서서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푸루나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법의 최전방에서 중흥무진해 온 그는 40년의 세월 동안 밤 12시 이전에 귀가해 가족들과 저녁 밥상을 마주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보통 청소년불자모임 한 곳에 서만도 4월 신입생환영회, 6월 재능대회, 8월 수련대회, 10월 독경대회 등 격월로 큰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10여 신행단체에서 소임을 맡다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병을 얻어 몸져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교장에게 그간의 포교활동은 보석처럼 빛나고 값진 시간이었다. 7~80년대 어린이, 청소년 불교를 비롯한 부산불교 최고의 부흥기의 크고 작은 법적과 함께 수행하던 도반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겁다.

"당시보다 불교가 침체돼 안타깝지요. 반면에 젊어서 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공부하는 신도들은 많아졌고, 도심에 포교당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등 긍정적인 발전도 많습니다."

현익재 교장에게 포교란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삶의 전부다. 불법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했다.

"흔히 부산 시민 중 2000만 명이 불자라지만, 실제 매월 1회 이상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불자는 10~15% 밖에 안될걸요?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는 포교에 있어서 유달리 소극적이예요.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거죠. 간혹 깨닫고 나서 포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안한다는 말이거든요. 전도, 전법이야말로 최선의 보살행입니다. 포교하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예요."

7~80년대 어린이, 청소년 불교를 비롯한 부산불교 최고의 부흥기의 크고 작은 법적과 함께 수행하던 도반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겁다.

"당시보다 불교가 침체돼 안타깝지요. 반면에 젊어서 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공부하는 신도들은 많아졌고, 도심에 포교당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등 긍정적인 발전도 많습니다."

현익재 교장에게 포교란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삶의 전부다. 불법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했다.

"흔히 부산 시민 중 2000만 명이 불자라지만, 실제 매월 1회 이상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불자는 10~15% 밖에 안될걸요?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는 포교에 있어서 유달리 소극적이예요.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거죠. 간혹 깨닫고 나서 포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안한다는 말이거든요. 전도, 전법이야말로 최선의 보살행입니다. 포교하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예요."

박지원 기자

# 교학연구발표회 23일, 해동중학교서

교학발표에 노심초사하는 전국 불교종립학교 교장선생님과 교법사들이 10월 23일 해동중학교(교장 손태석)에 모였다.

올해 제39회를 맞는 교학연구발표회는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환희지 법당에서 개회식을 갖고, 2교시부터 전 학년 21개 교실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윽고 교법사의 우리나라 고건축 감상법 수업에는 1학년 학생들이 종교학습지를 교재로, 고건축의 용어와 특징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법 등을 학습했다.

제39회 교학연구발표회 시범학교로 선정된 해동중학교는 이달 초 환희지 법당을 확장 이전해 쾌적한 실험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손태석 교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심성 밝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진리·극락왕생·태평성대기원 28일, 故 강석진 회장 제25주기 영산대재

동명불원 마당에서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동명불원 마당에서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동명불원(주지 정산) 장건주 교장(석진 거사(동명목재 회장)의 제 25주기 기일을 맞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10월 28일 동명불원 마당에서 거행된 영산대재는 오전 10시 외대령, 괘불이운을 시작으로 영산작법, 각 청사, 상주권공, 주지 정산 스님 법문, 관육, 시시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이뤄졌다.

영산대는 불교의 재의식 중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으로 산자는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망자에겐 영혼을 천도해 극락왕생하게 하며, 난세에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의 백미로 손꼽힌다.

특히, 불모산 영산재 보존회(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22호)의 진행으로 선보인 구성지고 웅장한 사성의 범음과 화려한 바라무, 무계감이 돋보인 나비무 등의 불교작법은 한국전통불교예술의 정수를 선보였다고 박지원 기자

# “계는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것” 금정중 학생 73% 교직원 100% 오계 수계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재)는 10월 27일 법어사 설법전에서 제 35회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법어사 주지 정여스님을 계사로 학생 328명, 교직원 8명, 학부모 18명 등 총 354명이 수계를 받았다. 이로써 금정중학교 재학생 73%, 교직원은 100% 전원이 오계를 수지하게 됐다.

주지 정여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모든 악한 것에 섞이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고 스스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라며 "오늘 받은



금정중학교 학생들이 법어사 스님에게 연비를 받고 있다.

오계가 앞으로 나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울타리를 쳐줄 테니 항상 잊지 말라"는 법문과 함께 수계증과 기념 염주를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 銀海寺

주지 운곡 돈관  
사부대 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 (054)335-3318-9 홈 www.eunhaesa.or.kr

불기 2553년 | 제1회 걸기대회

#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행사일시 2009. 11. 7(토) 09:00 ~ 12:00  
 집결장소 어린이대공원 옆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걸기코스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3.4km)  
 참가인원 3,000명  
 참가신청 불자: 각 사찰에서 일괄 접수  
 시민: 당일 현장 접수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51-797-5114, 051-861-8800

경품내역: 자전거 108대, 종합 건강진단권, 국내 왕복 항공권, 영화 관람권, 경주코모도호텔 숙박권, 부산코모도호텔 뷔페 식사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건강보조식품

참가비: 무료 | 참가자 전원 기념품 및 빵 음료 제공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www.baob.kr),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BBS 부산불교방송 (www.bbsradio.co.kr)  
 후원: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어사, 심광사, 안국선원, 미용사, 법연원  
 후원: 구포성심병원, 동원부산경남유동, 동국대, 통일전기, 대우산업, 대원플러스건설, 미월드, 부산경남경마공원, 부산불교지도자포럼,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시민회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 서부산센터명원, 에어부산, 엠제이테크, 종로금속 (주)DSE, 천호식품, 코모도호텔, 태금정, 한국닛산, 한국한의원, H·S캐미칼 (가나리산)

특별협찬: 파크랜드

부산불교연합신도회 Tel. (051) 861-8800 Fax. (051) 861-8802 www.baob.kr